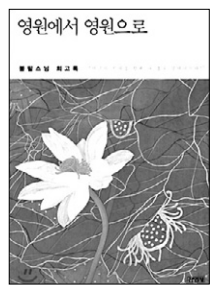


“행복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게 있다. 나는 어떤 행복 원하노?”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스님 저음
김영사 펴냄
1만4천원

“묘관삼 입구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질 무렵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을 따라 한참 올라갔더니 우뚝두뚝 무성하게 생긴 스님이 보였다. 상상 속에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도반인 향곡스님이었다. ... 아버지 큰스님은 아마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어디론가 피해 계셨던 것 같다. 조금 있다가 향곡스님과 함께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눈이 부리부리한 스님 한 분이



성철 스님 탄생 1백주년 맞아 회고록 펴낸 불필스님이 맞아본 청와대 초청했을 때 모습

성철 스님 딸 불필 스님 회고록 펴낸 가족사와 성철스님 법문 노트 등 공개 “13세때 성철 스님 가라고 쫓아보내”

나타났다. 마음속으로 ‘저 분인가?’ 하는 순간, 그분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 ‘가라,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한 치의 미련도 없이 삼촌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서버렸다. “집에 가자, 삼촌!”

지난 1993년 입적한 성철 스님의 유일한 혈육 불필 스님이 처음 마주한 ‘아버지’ 성철 스님의 모습은 단호하고 매정했다.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회고록인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꼭꼭 담아 왔던 절절한 가족사와 곱게 간직해 온 성철 스님의 편지, 사진, 친필 법문 노트 등을 세상에 꺼내 놓았다.

자사인 불필 스님은 성철스님 친필자가 제자다. 스님은 1961년 3월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정식 비구니계를 받은 뒤 경북 대승사 묘적암,

해인사 국일암, 지리산 도솔암 등에서 수행하다 지금은 해인사 금강굴에 주석중이다.

불필 스님은 지난 동안 결제 한 철 동안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이 책을 썼다. 처음에는 산속에서만 살아온 선승인 자신이 책 내는 일이 옳은 일인가 싶어 여러 차례 출간 제안을 고사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부친인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큰 스님 법대로 석남사 대중들과 참되게 수행해온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달라는 청을 차마 물리치지 못했다.

이 책에서 불필 스님의 눈을 통해 소개되는 성철 스님은 가장 철저한 수행자인 동시에 너무나 자비로운 존재다. 성철 스님이 머물던 해인사에 하루는 초로의 보살이 찾아왔다. 사연인 즉 들어보니 베트남전에 참전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었다. 성철스님은 일단 보살에게 쌀을 가져다 밥을 지어 부처님 전에 올리라고 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번에는 한 번에 3천 배 기도를 하라고 명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일이 끝나자 신심을 키울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시킨 것이다.

성철 스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불필 스님의 인간적인 고백 또한 절절하다.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에도 영결식과 다비식에 가지 못했다. 신문에서 불필 스님의 법명에 담긴 뜻, 즉 ‘필요 없다(不必)’는 의미를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장애)와 비슷한 뜻으로 해석해 세간에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필 스님은 다비식 당일 늦은 오후 금강굴 위다비장에서 사그라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다 합해서 다시 만나 뵈 것을 약속하는 아홉 번의 절이었다. 불필 스님은 “생사의 바다에서 마음의 눈을 바로 떠서, 영원한 대자유인으로서 성철 스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책에는 인홍 스님, 법전 스님, 향곡 스님, 묘엄 스님, 법정 스님 등 치열한 선지식들의 용맹정진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한 예로 11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법전 스님은 해인사에 있을 때 선방에 앉으면 미동도 하지 않아 ‘절구통 수좌’로 불렸다. 1주일 동안 잠 자지 않는 해인사 전통의 용맹정진 때도 유일하게 졸지 않은 사람이 법전 스님이었다.

졸지 않는 비결을 묻는 후학들에게 법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루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졸 수 있는가?” 이처럼 철저한 정신과 수행이 법전스님을 우리 시대의 대승(大僧)으로 만들었다.

성철 스님과 불필 스님의 가슴 찡한 가족사는 이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이야기이다. 불필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딸의 출가를 막기 위해 남편인 성철 스님을 찾아왔다. 철조망을 두른 채 정진하는 성철 스님을 종일 기다린 어머니는 스님이 사자살에 온 틈을 타 문을 부수고 들어다친다. 성철 스님은

시자들에게 큰 소리로 당장 쫓아내라며 펄펄 뛰었고, 어머니는 지아비 성철스님에게 “스님, 내가 할 말이 있어 왔소!”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자들에게 끌려나오고 말았고,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발걸음 돌려야 했다. 남편과 딸이 절로 떠나보낸 어머니는 그 불연(佛緣)을 어쩔 수 없었는지 헌인곱의 나이에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

불필 스님은 “영원한 행복과 일시적 행복이 있다”고 하실 때 나는 벌써 내 생을 결정내 버리고 말았다”며 “항상 행복만 추구했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가를 꿈꿨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언니, 출가한 아들을 보러 금강산까지 찾아갔던 할머니



사진 좌측 시계방향으로 인홍 묘엄 불필 성철 스님 순. 해인사 백련암 정경각 앞에서 촬영했다.

성철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에 불참 금강굴서 홀로 3배 아닌 9배 올려 “영원한 자유인으로 다시 만나자 서원”

니, 남편에 이어 딸까지 출가한 뒤 50대에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어머니까지 “전 부 선생이 스님들인것 같았다”는 가족사도 풀어냈다.

성철스님은 법문노트에 수도팔계(修道八戒·수행자가 지켜야 할 8가지 원칙) 등의 법문을 담았다고 한다. 영원한 자유를 위해 일시 소소한 영화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회심과 절속, 고독, 전대, 하심, 전념, 노력, 고행 등이 그것이다.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법문도 있다. “나를 위해 남을 해침은 불행의 근본이요 참다운 행복은 오직 나를 버리고 남을 돕는 데서 오를 깨달았으나 항상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일하고 사는 사람이 돼 영원한 행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주소서.” 등등. 김주필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천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업적 조명

일꾼 의천

오윤희 지음 | 불광 펴냄 | 2만원



2011년은 고려대장경 조성 천 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여러 학술대회가 열리고 전시회가 개최됐다. 1011년(고려 현종 2년) 거란 침략에 불력(佛力)으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돼 1087년(신종 4년)까지 77년에 걸쳐 6,000여 권의 경판으로 완성됐다. 그리고 1073년(문종 27년)부터 1090년(신종 7년)까지 대각국사의 친은 불경과 경소를 정리한 목록집(신편제종교장총록)을 완성했고, 이 목록에 따라 1099년(숙종 4년)까지 4,740여 권이 인강(印刊)되었는데 이것을 ‘속장경’이라 한다. 이 경판들은 모두 대구 부인사에 이관, 소장되었으나 1232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몽고군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는 대장도감을 새로 설치하고 1236(고종 23년)부터 1251년(고종 38년)까지 재조대장경을 완성했다. 이 대장경은 663한 1,562부, 6,778권에 경판 수는 81,258판이다. 이 경판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을 ‘속장경’이라 한다. 이 경판들은 모두 대구 부인사에 이관, 소장되었으나 1232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몽고군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는 대장도감을 새로 설치하고 1236(고종 23년)부터 1251년(고종 38년)까지 재조대장경을 완성했다. 이 대장경은 663한 1,562부, 6,778권에 경판 수는 81,258판이다. 이 경판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을 ‘속장경’이라 한다. 이 경판들은 모두 대구 부인사에 이관, 소장되었으나 1232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의천은 이 《교장》 결집을 통해 모든 중생이 올바른 삶과 실천을 통해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했

초조대장경속 누락된 불경 정리 의천, 큰 공헌은 《교장》 결집 구범여행길 따라 저자 자료 수집

의천은 문헌결집, 말하자면 책에 삼을 걸었던 인물이다. 그 삶의 중심에 《고려속장경》 《교장(敎藏)》이 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을 해냈다. 고려 《교장(敎藏)》은 그 규모만 따지더라도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큰 일이었다. 송, 거란, 일본에까지 장소를 수집해 이룩한 4,000여 권 대규모 문헌결집인 《교장(敎藏)》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헌들을 집성한 것이긴 해도 불교라는 틀 안에서 평가하기에도, 선종이나 교종 등의 종파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그 의의와 가치는 너무도 큰 것이다. 의천은 이 《교장》 결집을 통해 모든 중생이 올바른 삶과 실천을 통해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했

염불수행 이론 정립과 실천 수행 소개

일심정도 염불수행

정목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천원



일심정도 염불수행은 소승으로부터 대승에 이르는 모든 수행문을 포섭해 간단명료하고 실천하기 쉬운 수행법이다. 정도는 부처님 지혜의 모습인 연기의 법계, 일심의 생령, 무량한 광명의 세계를 아미타불의 정토라는 종교의 세계로 전환해 보인 것이다. 일심정도 염불수행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정토를 생각하고 관하도록 인도하는 중도의 실천이다. 수행의 요체는 일심, 광명, 화신이다. ‘일체계경 본래일심’인 지혜를 우리러 믿고, 성소작지에 의지하여 아미타를 범으로 삼아 칭명과 심법과 관상의 공덕을 상속하여 실천한다. 염불의 공덕은 우매한 범부도 자비광명에 섬수되어 윤회를 벗어나게 한다. 믿음과 이해가 깊은 근기는 자연과 중생이 청정한 공덕상을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관하여 정토의 경계를 감득하고 정정취에 들어간다. 이 책 저자인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에 따르면, 원효(元曉, 617-686) 대사의 일심정도 염불수행은 독창적

다. 그의 간절한 소원으로 교장은 불교연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를 축으로 송, 거란,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불교문화로 결속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게다가 의천은 《교장》외에도 《원종문류(圓宗文類)》나 《석원사림(釋苑詞林)》 같은 큰 규모의 문헌집성도 함께 이루어 냈다. 의천이 집·간점으로 남긴 기록들이 그 같은 일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이 점점이 담겨 있다.

세속의 나이 마흔 일곱, 그 짧은 삶 동안 의천이 이룬 일들은 너무도 큰 일들이다. 특히 천 년 세월을 넘어도 칭송받는 역사적 문헌결집은 그 일의 의미하는 바가 크고 방대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천대사는 빠르게 잊혀졌다. 다행히 근래 들어 의천이나 그의 문헌결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왜 해야 했는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저자는 의천에 관한 기록을 모두 찾아 조사하면서 의천의 송나라 구범여행길을 기록에 나온 대로 걸으면서 그 자취와 새로운 기록을 찾아내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씩 맞추어 가면서 세상 밖으로 의천을 이끌고자 하겠다. 자잘한 조각과 단편들에 기대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막연하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심증을 늘어놓을 수만도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남아 있는 기록과 흔적을 그대로 많이 소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선부를 해석을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생동감도 더한다는 생각으로 천 년 전 의천을 우리 곁으로 끌어내는 데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주필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꿇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아우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아우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1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신용신인터출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